

국가예산 확보 발 벗고 나섰다

송 지사, 군산 산업위기기정
따른 범정부 지원대책 따라

국토부·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 차례로 만나
현안사업 예산지원 건의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 산업·고용위
기지역 지정에 따른 범정부 지원대책
건의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
해 16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4월 30
일 재차 중앙부처를 예방 등 강행군
을 전개하고 있다.

송 지사의 이와 같은 동분서주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은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이 가장 중요한 시
기로 판단, 지휘부 등이 중앙부처가
문턱이 닿을 정도로 온힘을 다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송 지사는 먼저 16일 국토부, 농식
품부 등 7개 부처 차관 및 실국장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
산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우선 GM군산 폐쇄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4월
5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후속조치 건의사업이
부처예산에 필수반영되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친환경차·스마트카 등
자동차산업 기술변화 대응 및 전북지
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
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에타면제 추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과 전북(새만

금)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4차 산업
혁명의 블루오션인 소형 해양무인시
스템 분야지원을 통한 '소형 해양무인
시스템 플랫폼 구축' 선도 사업비 40
억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
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는 최근 완전개통된
고군산군도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40억원
반영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
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에타면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에게 자
동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항만종사자의 수입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자동차 화물배정' 및 '항만시설사용
료 100% 감면'을 건의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을 방문해 문
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
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식품클러스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8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10억원,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판
역혁신밸리 조성 210억원 등 7개 사업
268억원이 부처단계 반영될 수 있도
록 요청했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을 찾아가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
업'에 대한 에타선정과 함께 국비
30억원 반영 건의와 지역공약 사
업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
업'의 조속한 에타시행 등을 설명했
다. /김진성 기자

靑 "드루킹측 추천인사, 인사수석실 자체검증... 부적합 결론"

청와대는 16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연
투 의혹과 관련해 전달 받은 오사카
총영사 추천 인사를 인사수석실에서
자체 검증을 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의원 이야기 대로 인사수석실로 추
천이 들어왔다고 한다"며 "인사수석
실에서 자체 검증을 했지만 요청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적합하지 않
다고 생각해서 기용은 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뉴스스

"잊지 않겠습니다"



16일 경기도 인산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식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길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4주기 맞아

"국민 51%,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계 달라지지 않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마무리... 내달 대진단 결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
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
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
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4
주기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라
며 "오늘은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
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
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

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면서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
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의 날을 앞
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
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면서
"30여 만 개의 다중 이용 시설 등 안
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
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
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
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미련해서 함께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스

이낙연 총리 "세월호의 진실 완전 규명에 노력"

정부 주도 영결·추도식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문재인 정
부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
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이
새기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 화
랑유원지에서 거행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지난날을 잊기 위해
서거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곧 세월호
를 세워서 선체수색을 재개한다"며
"양승진 님, 박영인 님, 남현철 님, 권
재근 님과 아들 혁규 군 등 미수습자
다섯 분이 가족에게 돌아오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

회와 선체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진실
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주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 주관으로 영결식과
추도식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이 총리는 "304명의 희생자에게 죄인
의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며 "인생에
서 가장 참담한 에통을 겪은 부모님
과 가족을 찾지 못해 보내지도 못하
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서는 쓰러진 세
월 용케 견뎌주셨다.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더불어 구조와 수습을 도
운 진도 어민, 잠수부들, 자원봉사자
들과 종교인들, 기부자들에게도 감사
의 뜻을 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안산과 인천과
진도에서는 기억과 치유와 안전을 위
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
부가 돕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남원의 봄'의 봄
대한민국을 예약하다

벚꽃로맨스 3.31 ~ 4.8 바래봉철쭉 4.21 ~ 5.20
춘향제 5.18 ~ 5.22 봉화산철쭉 4.28 ~ 5.27